



농민주보

이 줄은 좁은 농민을 위한 넓은 길

농민신문

민주 독립 국가 건설 목표

하 지중장 뒤임후 대조선정체 선명

조선민족을 미구정 물결과 만나 조선민족 지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미국의 압력을 받은 우리가 미국인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. 또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고 있을 것이다.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할 것이다.

미국은 우리에게서 혁명적인 정파와 뒷장래 조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.

미국은 우리에게서 혁명적인 정파와 뒷장래 조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.

남체 금원 남독

국민의 애국심에 호소

현재 남조선에는 거액의 금원을 모으고 있다. 이것은 국민의 애국심을 시험하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.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.

국민의 애국심을 시험하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.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.



위하여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다.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.

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.

자배급 고보

일십일

자배급 고보 일십일

자배급 고보 일십일

산림녹화 계획

매년 5억 5천 만 두 식목 계획

산림녹화 계획

매년 5억 5천 만 두 식목 계획

미·봉은 지구에

협력 대항할 것

미·봉은 지구에 협력 대항할 것

협력 대항할 것

일본서 청목과

세멘트 수입

일본서 청목과 세멘트 수입

일본서 청목과 세멘트 수입

중외 금구 축제

시량규제 제 4호 공포

중외 금구 축제 시량규제 제 4호 공포

중외 금구 축제 시량규제 제 4호 공포

중외 금구 축제 시량규제 제 4호 공포

중외 금구 축제 시량규제 제 4호 공포

장편동화

꼬맹이나라

글짓고 그림 그리는 사람 이주호

(六) 꼬맹이나라 임금님 (1)

▶참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?◀
▶난 우이야요◀
▶우이요?◀
▶네~◀
우이는 대답 하고 나서
▶당신은?◀
하고 되 물었습니다.
▶네 전 이 나라의 학자입니다.
차차 지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엔 학자가 많습니다. 전 그 중에서 세상의 각 나라 말을 연구 하는 언어학자입니다.
이름은 뽀-꿍-뽀꿍이라고 부릅니다.◀
학자의 이름을 듣자 우이는 웃음이 나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.
▶뽀-꿍-뽀꿍◀ 얼마나 웃음고 재미

있는 이름입니까?
?더구나 우이는 언젠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신 동화 생각이 납니다. 뽀-꿍-뽀꿍이라는 두 도적놈의 이야기였읍니다.
임금님의 옥사 (도장) 를 뽀-꿍-뽀꿍이란 두 도적놈이 훔쳐갔었다는 이야기이었읍니까요.
▶어쩌면 그렇게 재미 있는 이름입니까?◀
▶뽀이 재밌습니까?◀
▶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뽀-꿍-뽀꿍이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는 뽀-꿍-뽀꿍은 도적놈의 이름이었어요.◀
▶하. 하. 하. 재밌거든요. 그럼 재밌는 동화들 알려 주실디다.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려주신 얘기중에서 제일 재미있던 것이 당신들의 꼬맹이 나라의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나는 늘 꼬맹이나라엘 가 보고싶었습니다. 내가 민일 꼬맹이 나라에를 찾아갈수가

있는 동화의 나라란 말이 귀가 번쩍 머이고 꼬맹이 나라의 많은 동화가 어서 듣고 싶었습니다.
▶그런 하나 얘기 해 보세요◀
▶네 차차 이야기 해 들이겠으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요◀
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더니 다시
▶참 우이씨는 어떻게 우리나라엘 이렇게 찾아 오셨습니까?◀
하고 물었습니다.
▶나는 당신이 알아 맞춘대로 초선아이입니다. 나는 학교에 다닙니다. 우리 선생님은 옛날 얘기를 좋아해서 늘 재미있는 동화들을 들려 주실디다.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려주신 얘기중에서 제일 재미있던 것이 당신들의 꼬맹이 나라의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나는 늘 꼬맹이나라엘 가 보고싶었습니다. 내가 민일 꼬맹이 나라에를 찾아갈수가

있다면 난 꼬맹이들을 도와서 아주 재미있게 살아보겠디고 늘 생각했어요. 그러는 차에 오늘 학교서 돌아오는길에서 뽀안 양복집은 다람쥐를 만나 이렇게 정말로 당신의 나라에 오게 되겠읍니다. 그러니까 내가당신의 나라에 온것은 당신의 나라를 쳐부시려는것이 아니지요. 그러나 뽀를 처음 보는 당신 나라의 군자들은 이 나라를 쳐부시려고 온 원수로안 모양이지요?◀
▶네그렇게 잘못알았든것입니다.◀
▶그러니까 당신 나라의 임금님만허락하신다면 언제든저 당신나라를 도와들이며 당신들과 같이 의롭게 살 생각입니다.◀
우이의 이 말에 학자는 아주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
▶고맙습니다.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◀
하고 말 했습니다. (계속)



한글강좌 (54)

(문교부 편수부 편찬)

월 (2)

월 조각

월은 꼬 무질하는 것을 모아 몇 조각으로 나눕니다. 이 나누힌 조각을 월조각이라고 합니다.

월조각의 갈래
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곧 (1) 으뜸조각 (2) 붙음조각 (3) 홀로 조각의 셋입니다.

(1) 으뜸조각

이는 월을 이루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으뜸되는 조각입니다. 으뜸조각은 다시 (가)임자말 (나)풀이말 (다)부림말 (라)기움말의 넷으로 가롭니다.

- (가) 임자말은 월의 임자가 되는 조각이요
- (나) 풀이말은 임자말이 된 일문의 움지김과 성결과 모양의

- 어떠함을 풀이하는 조각이요
 - (다) 부림말이란 것은 남음적짜가 월의 풀이말이 될적에 반드시 그 움지김에 부러여 지는 조각이요
 - (라) 기움말은 잡음짜가 월의 풀이말이 될적에 반드시 정작 우리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기워야 하는 조각입니다
- ▲ 보기
- (가) 임자말.....새가 노래한다
 - (나) 풀이말.....하늘은 맑다
 - (다) 부림말.....농부가 밭을 갈다
 - (라) 기움말.....이 사람은 스승이다
- (가) 임자말과 풀이말과의 결합(관계)
- 이에는 세 가지의 꼴이 있습니다
- | | |
|---------|------|
| 임자말 | 풀이말 |
| (가) 무엇이 | 어찌하다 |
| (나) 무엇이 | 어떻하다 |
| (다) 무엇이 | 무엇이다 |
-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
- (가) 팔...새가 노래한다 (무엇이 어찌하다)
 - (나) 팔...하늘은 맑다

- (무엇이 어찌하다)
 - (다) 팔...그이는 (농부)이다 (무엇이 무엇이다)
- 위의 보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자말은 임자말 (이름짜, 대이름짜, 셋짜)에 자리토짜가 붙어서 되는 것이며 풀이말은 풀이말 (움지김, 어떨짜, 잡음짜)로 되어있읍니다. 때로는 풀이말은 둘 이상의 풀이짜로 되기도 합니다. 이를테면
- 나도 가아 보겠다
너도 자고 싶으찌?
의 밑줄 그은 풀이말들과 같습니다
- (나) 부림말
- 부림말은 임자말에 토짜를 더하여서 만듭니다. 이를테면
- 아이가 책을 읽는다
스승님이 글을 쓰신다
에서 밑줄을 그어 놓은 말과 같습니다
- (다) 기움말
- 기움말은 임자말만으로 되기도 하고 임자말에 토짜가 붙어서 되기도 합니다. 이를테면
- 이것은 책상이다

- 그것은 연필의 아니다
에서 밑줄을 그어 놓은 말과 같습니다
- (2) 붙음조각
- 이는 으뜸조각에 붙어서 그것을 꾸미는 노릇을 하는 조각입니다. 이에는 (가)어떨말과 (나)어찌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
- (가) 어떨말은 임자말을 꾸미는 단이요
 - (나) 어찌말은 풀이말을 꾸미는 말입니다
- ▲ 보기
- (가) 어떤말...의 책은 내 것이요. 제스른 이여 개아미에게 가져 그 하는것을 보고 저해로운 이가 되라
 - (나) 어찌말...물이 매우 맑다. 세월이 살갈의 뽀리 길다
- (가) 어떤말
- 어떤말은 (1)어떤말로 되기도 하고 (2)풀이말의 어떤말로 되기도 하고 (3)임자말에 토짜가 붙어서 되기도 하고 (4)임자말만으로 되기도 합니다

말성암은쟁동이

